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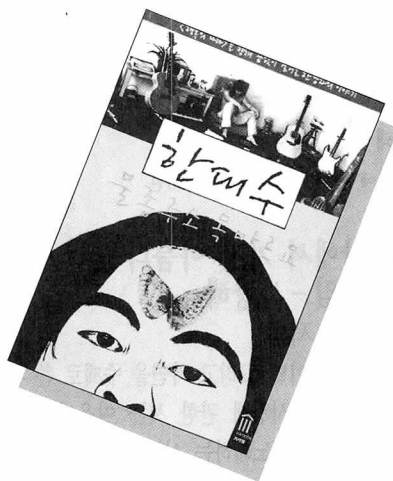
청춘의 혼돈에서 얻은 삶과 음악

《한대수, 물 좀 주소 목마르요》 펴낸 한대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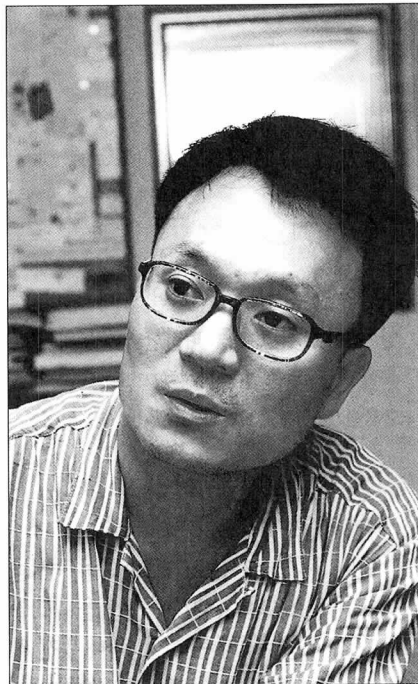
지금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청춘을 함께 보낸 여인’ 명신과의 사랑과 이별은 인생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책을 쓰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일은 분명 고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움을 넘어선 기쁨을 느낀다. 인생에서 행복이 길지 않다는 것, 다만 고통이 멈춘 사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제 나이가 스니라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삶의 대부분을 나그네로 살아온 그는 아마 남은 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경제난국을 맞은 우리나라에 대해 애정 어린 질책도 아끼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다. ‘가벼운 풀밭 위로’ 산책하고, 몸이 아픈 두번째 아내 옥사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주는 것, 욕심을 부리자면 그동안 내놓은 앨범 《멀고 먼 길》, 《고무신》, 《무한대》, 《지역상실》, 《친사들의 담화》를 정리하고, 재미있는 무대를 꾸미는 것이다. 그가 늙은 체하는 것이 낯설다. 아직도 ‘행복의 나라’가 청춘들에게 불려지기 때문이다. — 이현주 기자



“장막을 걷어라...”로 시작되던 ‘행복의 나라’는 70년대 초 트로트밖에 모르던 우리 귀의 장막을 걷어냈다. 너풀거리는 머리와 목에 건 하모니카... 스무살의 한대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왔다. 30년이 지나 이제 스니 된 그가 자신의 음악과 삶을 담은 《한대수, 물 좀 주소 목마르요》(가서원)를 펴냈다. 들끓는 청춘과 어리석음, 실수, 그리고 불운에 대한 기록이다. “제가 십대를 보낸 미국의 60년대말은 문화적으로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한대수씨(대중음악가·사진작가)의 문화적 자양분은 이때 얻어졌다. 비틀즈, 지미 헨드릭스, 밥 딜런, 꽃을 꽃은 여자와 나팔바지를 입은 남자들, 마리화나 냄새, 모든 것이 질서로부터 이탈된 문화의 혼돈이었다. 17년 동안 행방불명됐던 아버지가 나타나면서 생김새 어머니,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역시 혼란이었다. 그는 불량서클에 가입하고, 건달 행세를 했다. 하지만 상담교사는 그에게서 시와 음악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했다. “제 이름은 한자로 큰 강(大水)이 아니라 큰 강가(大津)입니다. 할아버지가 큰 강가는 문화의 발원지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예지력을 가졌던 것일까. 정식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축산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뉴욕에서 사진을 전공한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당연히 노래를 했다. 첫 음반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두번째 앨범은 체제전복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금지곡이 됐다. “무서운 것은 스스로의 자기검열입니다. 27살에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사진의 힘, 진실의 힘

《사진으로 세상 읽기》 펴낸 오동명씨

‘단 한번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현재를 영원으로 못박는 것’. 사진을 일컫는 말이다. 사진에 담긴 현재는 크든 작든 역사의 한 단위로 기록된다. 우리가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일보 사진기자 오동명씨(41)는 최근 펴낸 《사진으로 세상 읽기》(눈빛)에서 카메라의 프레임에 붙잡힌 세상을 때로 격양된 목소리로 때로는 잔잔한 울림으로 읽어냈다.

“사진기자는 최전방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표정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제 카메라에 붙잡힌 세상이 모두 다 지면을 통해 세상과 만나지는 못합니다. 신문기사로서는 유산돼버린 이 세상의 진실을 가려내 다시 세상과의 맺줄을 이어주기 위해 책으로 묶었습니다.”

‘유산’의 목록에 들었던 100컷의 사진과 그에 관한 54가지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빛과 어둠을 증언한다. 역사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낮부터 만취한 얼굴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고깃집 계단을 내려오는 두 전직 대통령, 대한항공기의 팜 추락사고 때 유가족들이 시신조차 미처 못 찾고 있는 마당에 고철 야적장에 방치된 비행기 잔해 등이 ‘어둠’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그러나 땅의 정직함을 믿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일에 만족해 하는 서울의 어느 영농후계자, 96년 연세대 사태 때 실신 상태에 빠진 대학생에게 물과 소금을 넣어주는 전경들의 모습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의 근거를 읽어낸다.

“우리 언론은 진실보다는 힘 있는 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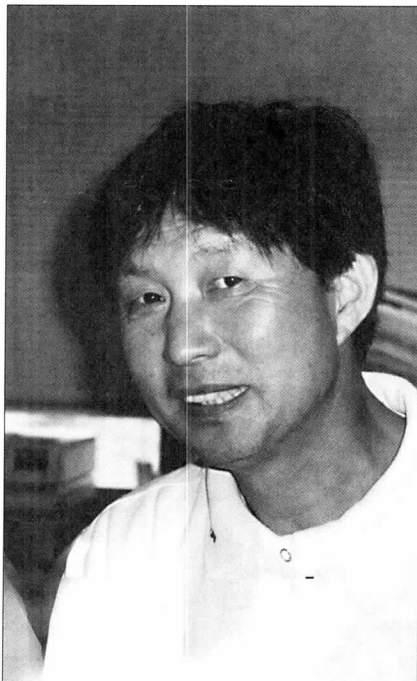
더욱 너그러울 때가 많습니다. 남북한의 어린이가 어색하게 만나는 모습이 남북관계의 진실에 가깝지만 언론에서 요구하는 것은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언론사 내부에서조차 비판정신이 사라져가고 공정한 언로가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사진도 엄연히 독자적 가치를 지니는 기사라고 생각하는 그는 아직도 문자우위의 사회현실에서 사진기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는 후배기자들에게 사진기자도 사회를 보는 비판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이 바로 진실과 등치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도사진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왜곡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갖는 위력이 큰 만큼 허위와 가상을 유포시킬 가능성도 많은거죠. 따라서 사진기자는 글보다 더 세심하게 대상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는 신문사진과 편집에 관한 글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출간될 이 책은 보도사진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편집에 정확히 반영되는 방안에 대해 비판과 제언을 담는다. 사진이 사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보겠다는 것이다. — 박천홍 기자





가슴 멧힌 한 풀어주는 우리소리

《얼씨구, 좋다》 펴낸 정강우씨

이쉬움도 많다.

“오뉴월 땀별 아래 거친 노동을 해도 소리가 있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신명나게 부를 소리가 없으니 일할 맛이 없고, 그러니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곳이라도 해서 신명난 사회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기왕에 펴낸 책이 많이 팔리기를 소원한다. 인세를 받으면 신명난 고향을 벌일 생각이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나라곳'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영혼곳' 판도 벌일 생각이다. 멋진 악기에 박자를 맞추지 않아도 신명나게 풀어낼 소리를 내쳐 부르며 사람들 가슴마다 멧힌 한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싶다.

“꾸미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들이 지켜지고 보존될 때 이 사회도 활기를 찾을 겁니다.”

우리 소리 지킴이가 되고자 하는 그의 본부는 무당이다. 사리사욕에 눈 먼 몇몇 무속인 때문에 무속인 전체가 비난받을 때면 낫이 뜨겁다.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존재하는 무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적'과 '육'에 관한 책도 펴낼 예정이다. — 오완진 기자

쌀 몇 가마니에 세습무 집안의 수양아들로 팔려가 전라도곳 18거리를 배워 무당이 된 사내는 고향을 찾아 전국을 떠돈다. 신명난 고향에 서면 걸쭉한 재담 한마디 빠질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소리가 바로 우리 소리의 원형이라고 굳게 믿는 무당 정강우(50)씨는 《얼씨구, 좋다》(현암사)를 펴내 우리 소리가 변형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새벽 고향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풀어내는 육담같은 소리가 우리 소리일시다. 손자를 얻은 할머니의 흥얼거림이 바로 우리 소리요, 장단도 박자도 없는 것이 우리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소리는 이렇게 불려야 한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판을 벌였다. 하지만 그의 흥얼거림을 소리로 인정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판소리 하는 사람도, 교단에서 소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소리를 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소리는 일상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리를 못따라 부르게 막고 있어요. 음악이란 틀 속에 소리를 가두니 배우기 힘들 수밖에요.”

소리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뒷동산에 올라가 올라 한다. 실컷 울다보면 저절로 소리의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으며 한편으로 우리 소리 지키기에 대한 한을 삭이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했다. 책을 통해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담은 우리 소리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지만



歷史 소직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좋은 원고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0 사료분야

《북역 삼국사기》(상·하), 《신편 삼국유사》, 《북역 삼국사기》, 《경국대전연구》, 《중보 고려사책인(1)》, 《북역 고려사》(1~11), 《경제육전집록》

1 통사·개설서분야

《조선토지제도사》(상·중), 《조선봉건시대농민의 계급구성》, 《세계사의 기초지식》, 《역사학개론》, 《사료한국사》, 《동아시아사의 보수와 개혁》, 《한국역사상의 라이벌》

2 고고·한국고대분야

《고구려백화고분》, 《발해사의 이해》,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 《고고학에의 접근》, 《한국사의 이해》(고대·고고), 《고고학발달사》, 《발해의 대외관계사》,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사회변동》, 《한국사의 시대구분》, 《고조선과 부여의 제문제》, 《신라수공업사》, 《삼한의 사회와 문화》, 《가야제국의 철》, 《한국 고대사회의 지방지배》, 《가야제국의 왕권》

3 중세사

《한국사의 이해》(조선시대1),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실학자 유득공의 고대사인식》, 《조려 이유태의 항아과 정훈》, 《조선시대 수군(1)》, 《고려 무인정권기 연구》

4 한국 근·현대사

《한국사의 이해》(근·현대1), 《한국근현대 사회사상사연구》, 《한국민족주의와 여성운동》, 《한국독립당 연구》,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 연구》, 《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한국근대 개회사상과 개화운동》

5 동양사

《중국고대사의 전개》, 《중국역사의 발전형태》, 《인도민족주의 운동사》, 《중국의 신사》, 《일본의 봉건제》, 《동양사의 기초지식》, 《아시아생산방식》, 《중국역사(상·하)》, 《중국사와 불교》, 《전통중국인의 일상생활》, 《당송제정사》, 《중국사의 시스템이론적 분석》, 《일본의 중국사논쟁》, 《중국중세사》, 《중국통일·중국분열》, 《명사오광》, 《중국경제지리》, 《중국의 개혁·개발사》, 《중국공업화의 역사》, 《중국경제사》, 《홍콩》, 《중국토지제도사연구》

6 서양사

《사회주의 사상사(1)》, 《서양사의 기초지식》, 《개정서양사학사》, 《프랑스농촌사의 기본성격》,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 《매너의 역사》, 《독일 제2제국》,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마르크스 이후》, 《스탈린 혁명》, 《베버와 마르크스》, 《마키아벨리와 국가이성》, 《중세유럽의 도시》, 《서양사산책》, 《초기사회운동의 이념》, 《분열된 노동, 분할된 노동자》, 《태평양전쟁, 맥아더 그러나 니미츠》, 《악탈의 역사》

7 기타

《신석호전집》(상·중·하)

8 아시아총서

《아시아 역사와 문화》(총 11권 중 1·4·5권 출간)



도서출판 신서원

종로구 교남동 47-2 협신빌딩 209호
전화 : 739-0222·3 팩스 : 739-0224